

꽃과 돌

김순임 연구집



작가 소개

김순임 작가는 2002년 데뷔 이래 20여 년 동안 씬 없이 작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가가 크고 작은 지역 또는 장소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자연과 그로 인한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의 과정과 결과물들이다.

경북의 풍기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보냈던 작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던 환경 안에서 자연이 가장 익숙하고 즐거운 놀이감이자 놀이터였다고 한다.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며 도시 생활을 시작한 작가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작가보다도 많은 곳을 다녔다. 국내의 20여 군데의 레지던시에 장단기간 머물렀다. 그곳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새로운 생활환경, 자연,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요소들이 작가에게는 중요한 작품 활동의 자원이 되어왔다.

김순임 작가의 작업 세계는 장소특정성과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 지역과 환경 그리고 자연물에서 비롯된 자연 형태와 과정을 중시하는 생태예술, 환경과 사람에 대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기록 방법에서 발견하는 예술의 가치로 나뉘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주요 작품

나는 돌 naneun Dol (2013)

김순임 작가의 “나는 돌” 연작은 내가 돌이라는 의미와 돌이 나는 의미들을 동시에 지니는 제목의 작품들로 작가가 머무는 다양한 장소 내에서 만나는 돌들을 수집하고, 모아진 돌 오브제는 지역의 일부이며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본 연작은 작품 제목의 앞뒤로 공간의 변화와 지역의 이름을 붙여 작품의 순차적, 지역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작가의 작품의 대표적 소재인 돌은 <나는 돌> 외에도 <어디서 굴러 먹던 돌맹이 I meet with stone>, <흐르는 돌Flowing stones> 등과 같이 많은 작품에서 등장한다.



<나는 돌> The Space 58 - 중국, 항저우>, 항저우에서 온 1337개의 돌맹이, 무명실, 깃털, 항저우 저장미술관, 2013

굴 땅 Oyster Land (2015)

김순임 작가는 새로운 지역에 머무르며 경험하는 동안 각 지역만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크고 작은 자연 오브제를 수집하고 작품의 일부로 품는 작업을 해왔다. <굴 땅>의 주재료인 굴 껍질은 작가가 선택한 만석동의 오브제이다. 작가는 시간을 갖고 차분히 들여다 본 만석동에서 내다 팔고 남은 많은 굴의 껍질을 버려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 굴 껍질은 사실 오랫동안 이 지역에 쌓여 바다를 땅으로 개간하는데 사용했던 재료로, 지금 그들이 밟고 있는 땅 아래를 채운 것들이었다. 이 작업은 지역의 생계수단인 굴과 그 껍질로 개간된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내어준 바다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작가는 만석동에서 얻은 굴의 껍질들에 묻은 빨은 닦아내고 오랜 시간동안 씻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손질했다. 그리고 마침내 굴 껍질은 온전한 그 형태와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오랜 작가의 노동의 수행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깨끗한 굴 껍질에 구멍을 내어 엮어서 넘클로 설치한 작품이다.



<굴 땅 Oyster Land - The Space69>, 굴껍질, 와이어, 종이테이프, 가변설치, 2015

춤추는 미생물 (2019)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생명이거나, 생명이었거나, 생명이 될 것들, 스스로 된 것 즉 ‘자연’이다-작가노트 중” 김순임 작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하게 먹고 마시고 버리는 자연에서 온 생명들, 즉 음식들이 마치 생명이 없었던 것처럼 다뤄지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생명의 순환성을 작품을 통해 제시한다.

〈춤추는 미생물〉(2019)은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신 음식물의 흔적들을 모아 작가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한 달간 먹은 각종 과일의 껍질들, 우리가 먹고 남은 찌꺼기의 찌꺼기, 고구마와 오이의 껍질, 피망의 씨, 커피, 와인, 담뱃재 등 다양한 잔재물들은 장지 위에서 예술 작품을 이루는 하나의 오브제이자 재료로 사용되었다.

일련의 음식을 먹고 난 뒤 남은 껍질, 씨 등의 흔적들을 관찰하고 결합하고 다시 해제하는 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작품은 버려졌던 생명의 흔적들을 또 다른 생명의 모습으로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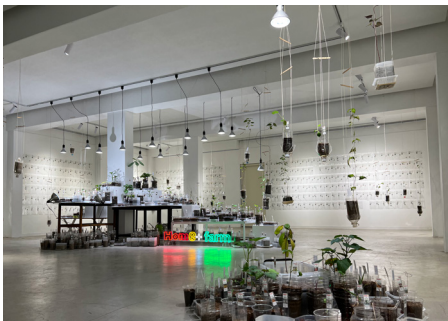


〈춤추는 미생물 Dancing Microorganisms〉, 한지, 물, 음식부산물(과일껍질, 커피가루 등) 308x544(16부조로 구성), 2019

홈플러스 농장 Home+Farm (2017~2022)

〈Home+Farm〉은 여러 마트에서 만난 생명의 이야기이다. 매일을 살면서 여러 마트와 시장 등에서 음식을 위한 재료들을 구입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남게 되는 음식물의 흔적들과 다양한 재활용 용기들이 작품의 주 재료가 된다.

김순임 작가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정해진 유통 시스템을 통해 채소와 과일과 곡물 등이 재배되고 수확되어 우리의 걸로까지 오는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다시 생명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예상과 생각보다 복잡하고 단단하고 대단한 생태계의 생명력을 보여준다.



〈홈플러스 농장 Home+Farm〉, 혼합재료, 가변설치, 소년화랑, 2022

어디서 굴러먹던 돌맹이(I meet with stone) (2003~)

2003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삶의 여정 안에서 조우한 수많은 돌맹이를 수집하며 이들을 만난 장소와 시간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조건 안에

서 만난 돌맹이는 특정한 과정을 거쳐 작품으로 완성된다. 돌맹이는 작가가 만난 날짜와 장소와 함께 기록되어 한 데 모여진다. 이렇게 모여진 돌맹이는 특정한 장소 안에서 설치되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며 작품으로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돌맹이가 자리한 장소의 사진, 돌맹이 그 자체, 그리고 돌맹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시점의 풍경이 사진으로 기록되어 두 개의 평면과 한 개의 입체가 액자 안에 설치된다. 하나의 화면으로 남겨지는 과정을 통해 돌맹이는 작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게 된다.

무생물인 돌맹이가 작가와 같은 시선과 주제성을 갖는 설정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무위에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를 일킨다.



〈어디서 굴러먹던 돌맹이 I meet with stone〉, 돌, 가변벽에 가변설치, 2012

흐르는 돌 Streamy Stones (2020~)

흐르는 돌 연작은 돌이 발견되는 본래의 장소에 대한 탐구가 동시에 이뤄진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돌을 엮거나 쌓거나 공간 안에 흐르게 함으로서 일종의 움직임이 풍경을 만들어낸다.

“흐르는 돌 Streamy Stones”은 2020년부터 시작된 연작으로, 특정한 지역의 돌맹이를 수집하고 그 돌맹이를 주요 재료로 살아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예술작품이 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흐르는 돌은 제주도 곳곳에서 제주 붉은 화산송이를 와이어에 엮어 공간을 흐르도록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제주 땅속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붉은 화산송이를 공중에 부유하게 만들며 특정한 공간을 형성했다.

2022년 안양천에 설치한 또 하나의 ‘흐르는 돌’은 다리 위에서 안양천 아래로 돌맹이 하나를 떨어뜨렸을 때 생겼다가 이내 물 안에서 흐르듯 사라질 동심원을 돌로 쌓아올린 작품이다. 돌로 쌓인 배돌배돌한 동심원이 쌓일 때까지 온전히 작가의 몸이 움직인다. 작가의 움직임이 끝나면 돌맹이로 만들어진 동심원은 물 위를 흐르며 서서히 사라진다. 그 과정 모두가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흐르는 돌 Streamy Stones〉, 안양천, 돌, 가변설치, 2022



(흐르는 돌 Streamy Stones_산지천 - The Space87), 돌, 가변설치 (자연소품), 2021

The People14-이옥란 Lee Ok Lan (2008)

김순임 작가의 People 연작은 2000년대 초부터 10여 년간 발표 한 부드러운 조각들의 일부이다. 한지(asian paper), 광목(cotton cloth), 실(thread), 울(wool) 등을 주요 재료로 하여 그가 살아온 삶 안에서 함께 해 온 이들의 이미지를 작가의 방법으로 만들어왔다. "The People 14 - 이옥란"은 광목에 목화솜을 넣어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광목과 목화솜은 작가의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목화솜 이불의 광목 호청을 벗겨내어 빨고 이불 속인 목화솜은 햇볕에 널어 말리시던 날들과 같은 일상의 작은 기억들에서 비롯되었다.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이자 동시에 소재가 되는 물질과 작품의 소재가 되는 대상의 선택 역시 모두 그의 삶의 기억의 한 부분에 대한 기록에서 출발한다. "The People 14 - 이옥란"의 시작은 작가의 할머니의 모습에서 시작되었다. 어린 시절 명절에 온갖 집안일을 건사하고 지쳐 누워 있던 할머니의 웅크리고 작은 몸과 그 순간의 바닥의 이불과 같은 주변의 환경이 하나가 되어 작가의 기억에 깊이 자리했고, 그 기억에서 비롯된 할머니의 모습은 광목과 목화솜이라는 재료를 통해 더욱 잘 표현되고 있다.



(The People 14-이옥란 Lee Ok Lan) 목화솜, 광목, 무명실, 70x185x135, 2006

The Face7-Satto Miuky (2008)

김순임 작가의 The Face 연작은 작가에 따르면, 부드럽고 따뜻하면서 동시에 강인한 삶의 얼굴을 만나면 그 얼굴을 드로잉으로 기억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얼굴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목화솜, 광목을 이용하고 무명실로 바느질하며 2000년에 시작한 코튼 드로잉(Cotton Drawing) 연작의 연장선상에 있는 The Face 연작은 양모를 주재료로 사용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어느 새로운 곳을 떠나든 가장 안에 마치 드로잉을 위한 일 반적인 재료인 종이와 연필을 챙기듯이 문진 양모와 실과 바늘 등을 넣는다. 마치 종이에 연필로 드로잉을 하듯, 양모에 실과 바늘을 이용해 한 땀씩 꿰매며 드로잉을 한다. The Face7-사토 미우키 Satto Miuky는 일본에서 만난 지매를 알고 있는 한 할머니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작가는 마음과 닮았던 이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The Face 7 - 사토 미우키 Satto Miuky) 양모, 2008

바다무지개 (2020)

<바다무지개>는 바닷가를 떠돌던 플라스틱 조각들을 모아 색깔별로 분류하여 공중에 매달아 그 자체로 무지개를 연상하도록 펼쳐 설치한 작품이다. 주로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로 작업을 해 온 김순임 작가는 플라스틱이 인간이 만든 제임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의해 자연화 된 풍경의 일부라고 보았다. 작가는 플라스틱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적어도 인지하고 되돌아보며 불편해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작품에 사용된 폐플라스틱들은 부산에 체류하는 동안 다대포와 물운대에서, 그리고 일본 규슈 지역 체류 기간 동안 지역 바닷가에서 수집된 것들이다. 마치 특정 지역에 머무르며 그곳에 둘러다니는 돌맹이를 주위 모으듯, 바닷가에 머물며 바닷가 주변에서 흘러 다니는 바다의 흔적이자 일부이며 우리 삶의 잘못된 행위의 결과물로서 플라스틱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작업은 시작된다. 작가는 그렇게 모아진 플라스틱들을 닦고 분류하며 하나의 공간 안에서 설치하여 인간의 삶의 일부를 보여주며 동시에 플라스틱 자체에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바다무지개 Sea Rainbow) 해양플라스틱, 무명실, 바늘, 모션센서, 자석, 가변설치, 홍타이아트센터, 2020

비둘기 소년 (2020)

<비둘기 소년>은 양모가 주재료로 사용되어 만들어진 소년은 작가가 뉴욕에서 지낸 기간 중에 만난 젊은이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한 도시 사람의 이미지를 작가의 대표 재료인 양모와 현장의 자연에서 얻은 새의 깃털과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해 구현했다. 작가는 항상 새로운 공간과 그 안의 새로운 사람들 또는 자연 물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인위적으로 변경시키지 않고 최대한 본래의 형태와 색을 보존하며 재료 자체가 주인공이 되도록 한다.

작가 약력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쳐가고 무시되거나 버려지며 하찮게 대우되는 것들을 찾아내 그 역시 가지고 있었을 의미를 찾아간다. 이 작품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비둘기 소년>은 뉴욕이라는 도시 안에서 눈에 띄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한 역할을 하며 존재하고 있는 공간 자체와 같은 존재라고 작가는 보았다. 작가는 역시 존재하지만 무시되고 도시 풍경의 중요하지 않은 일부가 되어 버린 비둘기가 이 소년을 설명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일 수 있다고 본다.



<비둘기 소년 Dove Boy - 데니얼Daniel-The People 19> 양보, 철사, 깃털, 데니얼의 보트와 운동화, 가변설치, 소마미술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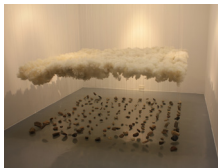
The Space12 (2007) / The Space17 (2008)

각각 2007년과 2008년에 미국 버몬트와 서울 난지에서 발표된 작품들인 The Space12와 The Space17은 이른 새벽 마치 산꼭대기에 걸쳐 있는 듯 넓게 펼쳐져 있는 문계구름의 모습과 그 밑에 매달려있는 돌맹이들이 설치된 작품이다. 관객은 양털로 만들어진 폭신한 구름 위에 놓고 싶어진다. 또한 구름을 관통하고 아래로 향해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매달려 있는 돌맹이들은 관객의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바람과 가벼운 손짓에도 흔들리며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한다.

작가에게 돌맹이는 그의 예술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의 하나이다. 머무르는 장소를 옮겨갈 때마다,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돌맹이들은 특정한 장소의 일부뿐이자 작가가 그 장소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통로라고 볼 수 있다. 장소의 흔적을 담고 있는 돌맹이들은 작가가 주운 그 순간 머물렀던 장소가 유일한 장소는 아닐 것이다. 그 돌맹이 안에는 오랜 세월과 다양한 공간의 흔적과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의 모습을 담았다.



<The Space12 - gihon RIVER> 기혼강 돌맹이, 무명실, 가변설치, VSC Red Mill Gallery, VT 미국, 2007



<The Space17 - 난지 Nanji> 167개의 난지 돌맹이, 양털, 무명실, 가변설치, 그림순컬러, 2008

1975 년 소백산 품기 출생.

2007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서울 한국

2002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부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23. 3.23 - 6.18 흐르는 공간, 삼각산급암미술관, 서울 한국

2022. 11.3-2023.1.10 Nature in Food, 소원화랑, 인천 한국

2022. 8.25-9.28 The Unknown Edible Beauty, OCI미술관, 서울 한국

2020. 6.25 - 7.7 Sea-scape_다대포2020, 홍티아트센터, 부산 한국

2020. 3.18-27 바다무지개, 규슈예문관, 치쿠고시 일본

2018. 8.24-10.28 흐르는 이들의 숲, 상평오갤러리, 보강양곡제예술촌, 타이베이 대만

2018. 7.20-8.15 Leaves Leave, 관두미술관 1/2Gallery, 타이베이 대만

2018. 4.7-26 Home+Farm/홈플러스농장 2017-2018,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안성 한국

2018. 3.23-7.31 길어진 사람들 2018, 발선아트갤러리, 인천 한국

2017. 10.20 Moon on Lavoir_ Kim Soonim Screening Night, 인천아트플랫폼 G2, 인천 한국

2017. 6. 17-7.13 Nomad Nature, 갤러리노마드, 여수 한국

2017. 1.6-1.22 꿈의 기억, 대안공간 틈, 인천 한국

2016. 8.26-10.30 땅이 된 바다_굴망, 인천아트플랫폼 야외, 인천 한국

2014. 11.20-26 Kim Soonim 드로잉전, 가와고에 산바초갤러리, 도쿄 일본

2014. 5.31-6.29 Residency to Move, 영은미술관 경기도평주 한국

2012. 11.29-12.16 길어진 사람들 On the Road,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서울 한국

2012. 6.4-7.31 나는 돌-I meet with stone, KAIST Research&Art, 서울 한국

2012. 3.2-15 생 날 씨앗들, 대안공간 틈, 수원 한국

2011. 3.5-4.3 Mind Space, Ox Warehouse, 마카오 중국

2010.12.20-2011.02.28 안:The Space35-산복도로, 부산 한국

2010. 4.3-5.9 The Forest of Strayer, 오픈스페이스 8배, 부산 한국

2009. 2.17-23 The Thread, The Memory, ISCP Gallery, 뉴욕 미국

2008. 10.15-20 Ethereal, 갤러리그림슨, 서울 한국(서울시립미술관SeMA 전시지원)

2008. 4.4-5.5 I meet with stone.-어디서 굴러버던 돌맹이, 대안공간 빈, 인천 한국(인천문화재단)

2008. 2.26-3.6 I meet with stone.-어디서 굴러버던 돌맹이, 대안공간 눈, 수원 한국(2008 대안공간눈기획지원전)

2007. 12.21-1.5 '알려지지 않은 신의 얼굴'전, 갤러리담, 서울 한국(2007담작가지원전)

2007. 4.13-16 The Ethereal Space, Red Mill Gallery, 버몬트 미국(프리엔 어워드 수상전)

<주요작품상전 (년도/ 소장처/ 작품명)>

2022 학술라삼청_ The Face16-주은, The Face17-취재야마, 부부

2017 인천문화재단_굴망2017

2017 서울시립미술관_The People 18 - 김기환

2015 서울시립미술관_The People14 - 이옥란

2015 영은미술관 경기도 한국_Cotton Drawing12 - Asok 2012, I meet with Stone

2014 AIR Vallauris Collection 프랑스_The Face15 - Rayir

2012 아틀리에 타인 서울 한국_The Face9 - Kim Gi Hwan

2012 KAIST Research&Art_I meet with Stone_KAIST

2011 제주도립미술관_Cotton Drawing10 - Kim Gi-Whan

2009 인천문화재단 아트뱅크_The Face7 - Satto Miuku2008,

2009 부산 오픈스페이스8배_I meet with Stone_부산

2008 제주도립미술관_The People17 - The Genius Boy

2007 미국 AAAC 뉴욕 아시안어메리칸아트센터_Cotton Drawing7 - Florence, The Face3 - Hubert

외.

이 책은 2022-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 조사-연구-비평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